

신정부의 한중관계 재정립 환경 진단 -대중국 정책 기조 전환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한중관계 재정립 환경 진단 -대중국 정책 기조 전환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신흥경제부장(Chlee@kcif.or.kr)

■ 목 차

1. 검토 배경
2. 우리나라 가치 상승 등에 따른 강경 대응 가능 요인
3. 중국발 수요 및 공급 충격 등 정책 제한 요인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연합전선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對중국 정책을 강경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중의 산업구조 연관성 등 정책 환경을 점검
 - 기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증대
- 우리나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등 대외 압박을 견디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크고 특히 최대 취약점인 반도체 공급처로서 경제·안보적 중요성도 상당
 - 특히 중국의 반도체 자급율이 10% 이하에 그침에 따라 전체 반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악화는 첨단산업 전반의 불안을 초래할 소지
- 우리나라도 중국의 시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기술우위 축소 등 여타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과 입장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해 실질적 위협이 되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여 여타 선진국과 지정학적 차이점이 존재
-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과 갈등보다 협력관계 유지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도 상당함에 따라 낮은 자세로 대응하기보다 냉온 전략을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공급망 등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한편 대중국 관계의 우위 확보 여부는 궁극적으로 기술 경쟁력에 있음을 인지하고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

1. 검토 배경

1) 미국의 연합전략과 우리나라 역할론 대두

-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등 연합전선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대중국 정책을 강경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중의 산업구조 연관성 등 전반적인 정책 환경 변화를 점검
 -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 수교 이래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투트랙(安美經中) 전략을 유지해 왔음.

- 최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국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퀴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오키스(AUKUS: 미국·영국·호주) 등 미국의 연합전선에 동참한 가운데 최근에는 공급망 구축 등 기존의 무역협정과 차별화하는 IPEF¹⁾도 출범(2022.05.23)
 - 우리나라도 조만간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우리나라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對)미국 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대(對)중국 정책은 강경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 과거 2000년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315%로 대폭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한 직후 중국이 우리나라 핸드폰과 폴리에틸렌 제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한·중 경제 갈등을 경험
 - 특히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해 반중 감정이 커진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달리 합리적인 물에 근거하여 대외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경계감이 상당
 - 2020년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2022년에는 동계올림픽 진행 과정에서 무리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감이 증대

1) 참여국: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

2. 우리나라 가치 상승 등에 따른 강경 대응 가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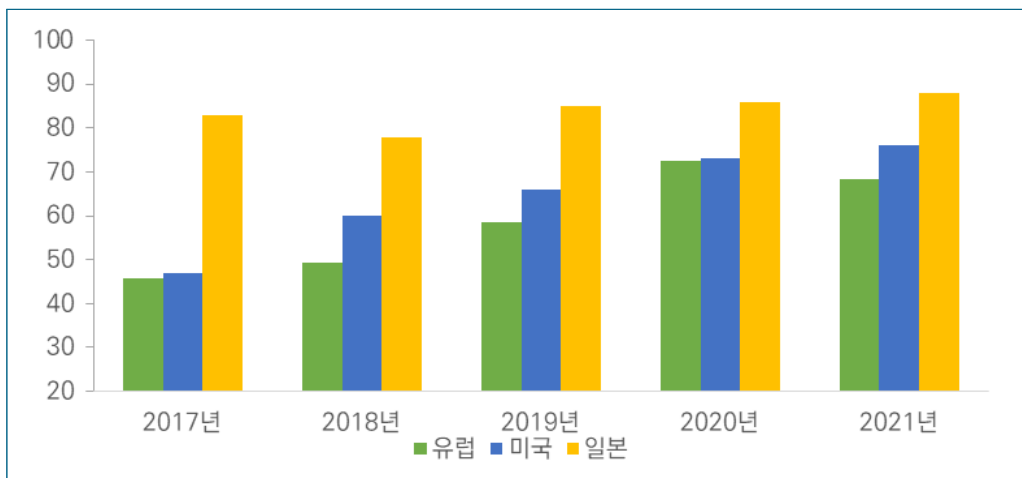
1) 우리나라의 국제 정치적 가치

■ 중국의 고립

- 최근 미국의 연합전선을 통한 견제가 뚜렷해진 가운데, 코로나19 기원설, 국가자본주의 등으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 경계심이 커짐에 따라 중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 상승
-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전선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겪으면서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고해지며 중국의 대외 압박감 증대
 -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한 선진국의 외교적 보이콧과 이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으로 대외 갈등이 커진 데 이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중국의 러시아 물밑 지원설도 선진국의 반감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 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 인식이 꾸준히 증가
 - 특히 최근에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역할론이 빠르게 증대

[그림 1] 주요 선진국의 反중국 정서(2017~2021년)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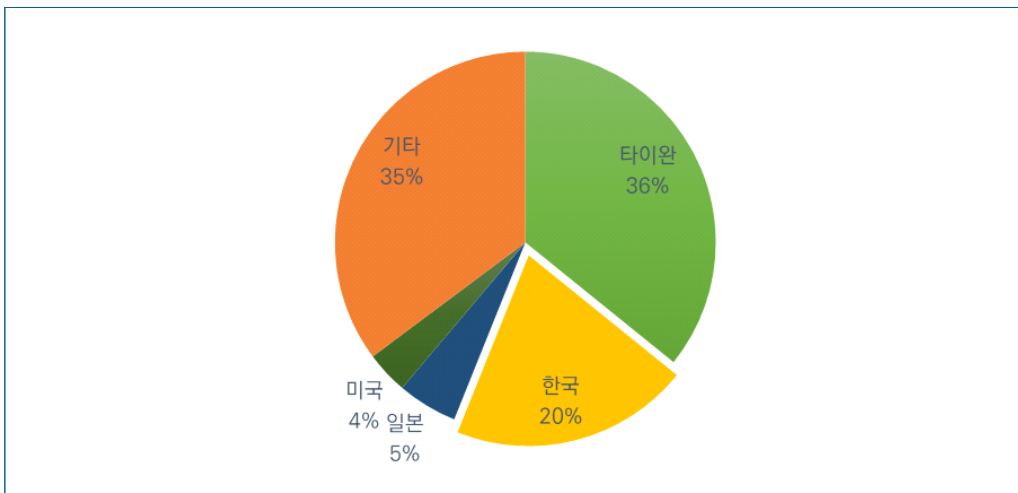
2)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 역할

■ 중국의 경제 안보

- 우리나라는 중국 입장에서 최대 취약점이자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 공급국으로서 중요성이 상당
-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50%(자체수요 35%)를 차지하지만, 중국 내 생산율은 15.9%(자국 기업 5.8%)에 그침에 따라 반도체의 안정적인 대외 공급처 확보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안보에 필수(Research Bulletin 2022)
 - 중국 반도체 발전을 저해하는 내부요인은 △정부 주도 경직성 △기업난립에 따른 지원 분산 △저임금에 따른 고급인력 부족 등이 지목
 - 대외적으로도 미국이 반도체를 미·중 간 기술 안보의 핵심으로 인지하고 네덜란드 노광장비 등 핵심 설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등 중국의 기술 개발을 차단
- 우리나라는 중국의 반도체 수입국 중 2위로 비중도 20%를 차지. 특히 반도체 공급국 중 중국과 정치적 대립이 가장 적은 국가
 - 중국의 대(對)한국 전체 수입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20%에 달함.

[그림 2] 중국의 반도체 수입 국가별 비중(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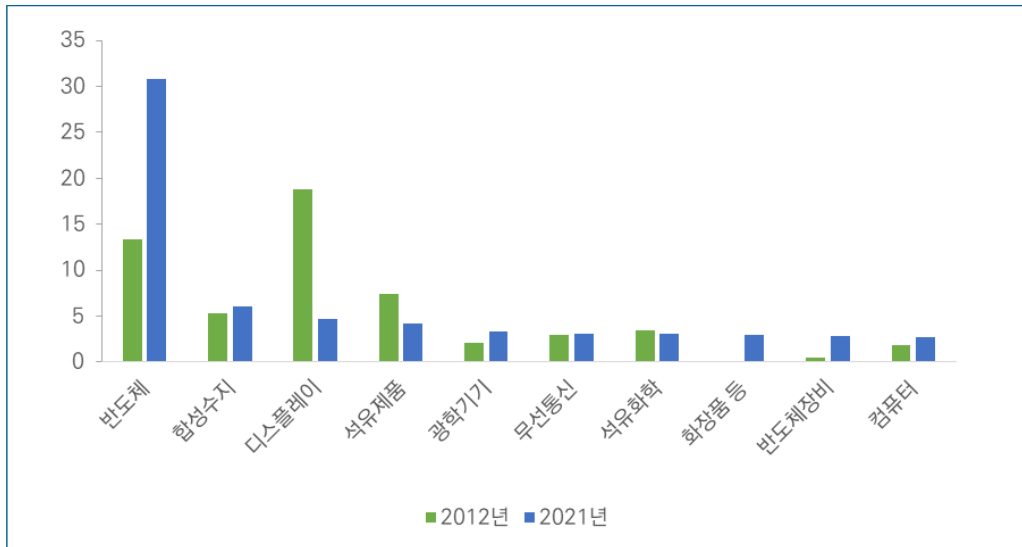


자료: KITA

- 다만 우리나라도 대중국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함에 따라 반도체의 중국판매가 중단되면 전체 수출 위축이 불가피
- 반면 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기존 대중국 주력 수출 품목은 많이 감소함.
 - MTI 3단위 기준 30.8%, MTI 1단위 기준 47.0%

[그림 3]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비중 변화(2012, 2021년)

(단위: %)



자료: KITA

3) 대중국 투자 익스포저 축소

-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호투자 규모는 아직 비교적 큰 규모이나 최근 2~3년간 축소되어 무역 등 실물경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국제투자대조표 상에 나타난 대중국 자산과 부채는 각각 609.5억 달러(비중 6.3%)와 612.6억 달러(5.1%) 수준

3. 중국발(發) 수요 및 공급 충격 등 정책 제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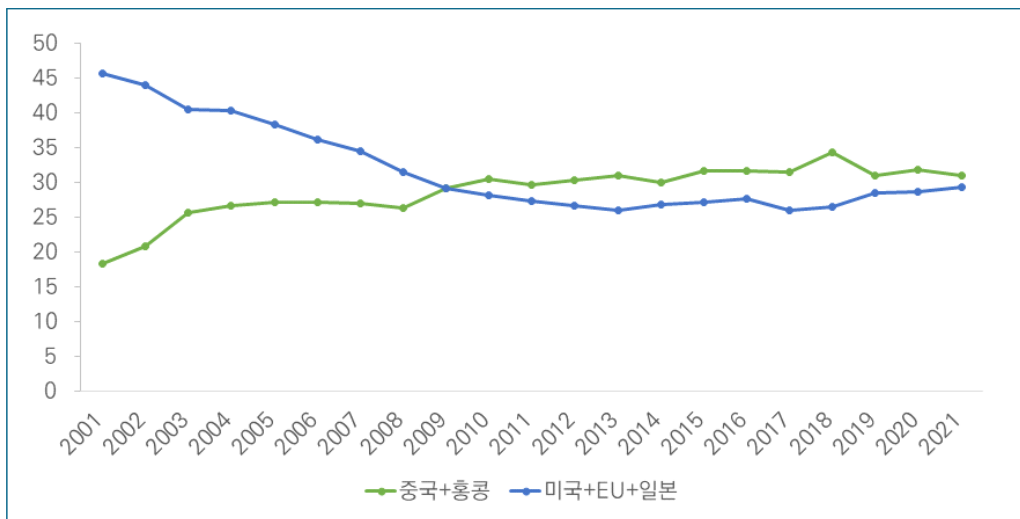
1) 중국발 수요 충격

■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큰 산업구조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31.2%(홍콩 5.8% 포함)로 대미국·EU 및 일본의 합(29%)을 상회.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출 비중은 4.5%에 그침.
-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도 41.7%로 미국(10.8%), 일본(18.9%)뿐만 아니라 중국(19.9%)보다 두 배 이상 커 여타 주요 국가에 비해 내수 기반이 취약

[그림 4]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200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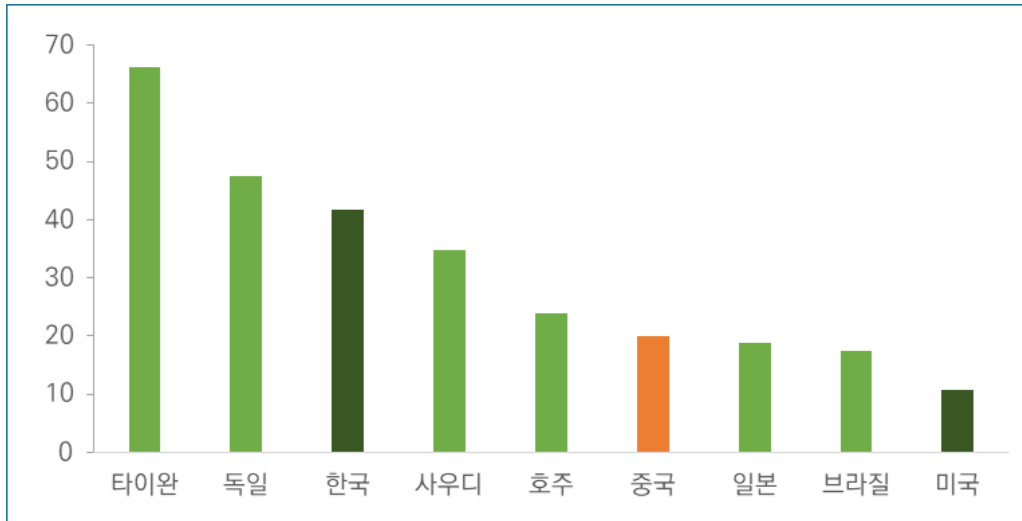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그림 5] 주요국의 GDP 대비 수출 비율(2021)

(단위: %)



자료: IMF

- 우리 경제는 높은 중국경제 의존성으로 인해 중국발 수요 충격이 미국발 충격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추정
 - 전체 수출기업 중 34.1%(15,694개 사)가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며 이 중 53.8%가 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집중. 특히 중국에 수출의 100%를 의존하고 있는 기업도 23.1%에 달함(김정규 외 2020)
 - 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전체 수출기업의 20.1%이고, 이 중 대미수출이 절반인 비중이 40.8%, 미국 수출만 100% 진행하는 기업은 12.5%에 그침
 - 중국의 최종수요로 우리나라에 창출된 부가가치는 미국의 최종수요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분석(김정규 외 2020)
 - 한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로 인해 영향이 중국보다 약 2배 큰 것으로 추정(강내영 2021)
 - 참고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시장 개방 등 참여국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작다는 점도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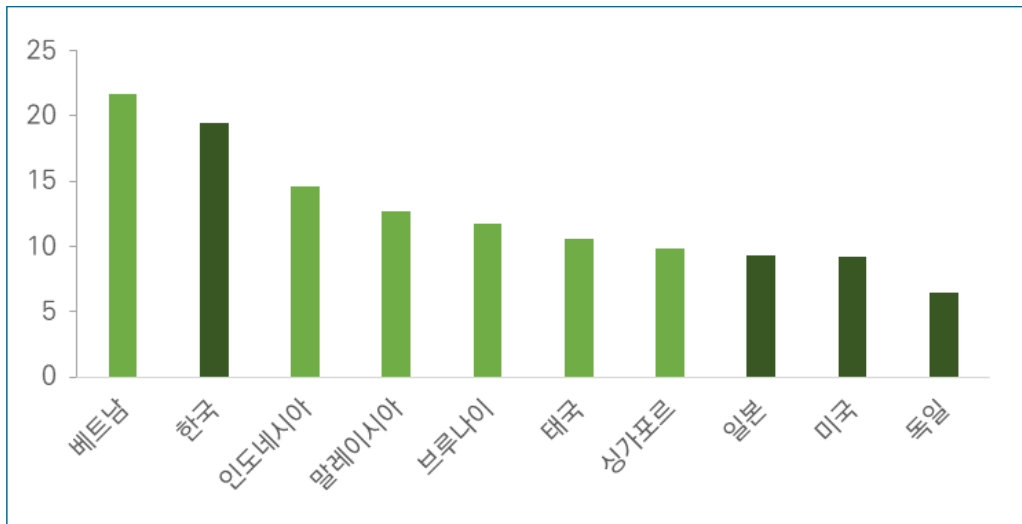
2) 중국 GVC(글로벌 가치사슬) 연계성

■ 중국공급망

- 우리나라의 중국공급망 의존이 심화한 가운데 특히 대체가 어려운 취약 품목이 중국에 집중. 품목도 광물 및 전자부품 등으로 넓게 분포
 - 취약 품목: 관련 품목의 전체 수입에서 특정 국가 수입이 70% 이상을 차지
-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 중 중국공급망 의존도는 19%로 주요국 평균(9%)의 두 배에 달함. 특히 광물의 경우 약 70%를 중국에서 조달
 -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공급망 의존도가 독일 등 4대 제조 강국은 물론 태국 등 아시아 생산기지국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공급 의존도가 주요 선진 제조 강국은 물론 중국보다 높아 해외 공급망 변화에 취약한 구조

[그림 6] 주요국의 중국공급망 의존율(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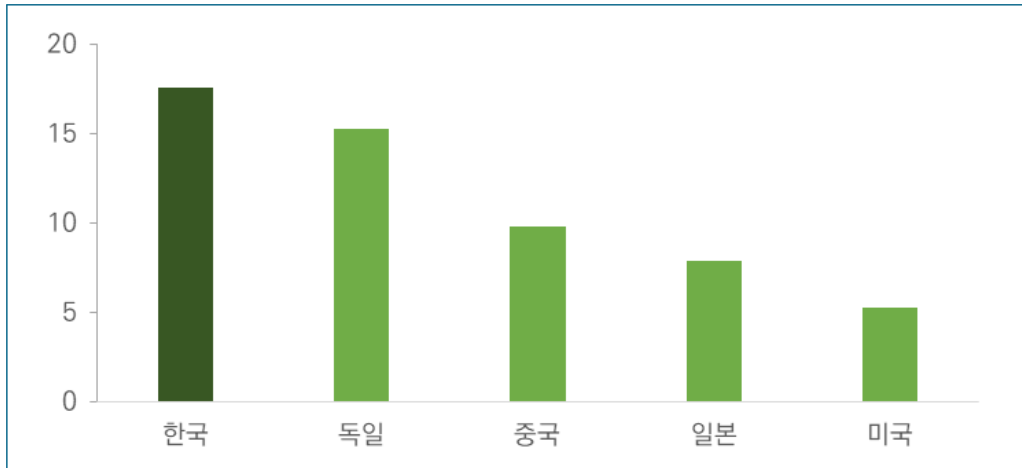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ADB

[그림 7] 주요 제조 강국의 해외 공급망 의존율(2020)

(단위: %)



자료: ADB

■ 중국산 취약 품목

- 작년 1~9월 수입 품목 중 단일국가 의존도가 70% 이상인 취약 품목이 약 30%이며 이중 절반이 중국에 집중. 전체 대중국 수입 중 취약 품목은 약 10% 수준
 -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된 품목은 총 1,088개이며 이중 604개가 반도체·배터리 등 차세대 산업의 필수 재료를 포함
 - 우리나라의 중국산 수요가 과거 저가 최종 소비재에서 최근 부품 등 중간재로 바꿨다는 점을 주목
 - 한·중·일 소재 및 부품 산업의 GVC 연계성이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장비, 전자부품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크게 상승하지만 일본 의존도는 많이 축소함.(정형곤 외 2021)
 - 일본도 중국 의존도가 한국보다 높아지면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형성

[표 1] 우리나라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2021)

부문	품목명	비중
반도체	산화텅스텐	95%
	탄화규소	72%
배터리	전구체	93%
	인조흑연	67%
	수산화리튬	84%
	격리판	34%
석유화학	초산에틸	64%
자동차	마그네슘	100%
농업	질소비료	80%
의료	네오디뮴	86%
	광학유리	79%

자료: KITA

3) 기술격차 축소

■ 한·중 기술력 비교

-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중 간 격차가 대부분 소멸하여 아직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강경 대응 카드가 제한될 소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한국·중국·일본·EU의 중점기술력을 평가한 결과 2020년에 한·중 간 격차가 거의 없어진 상황
 - 평가항목은 기계·에너지·항공 우주 등 11개 분야의 120개 중점 과학기술
- 미국의 기술력을 100으로 볼 때,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2018년 0.9%p에서 2020년 0.1%p로 축소
 - 한국 80.1%, 중국 80.0%

[표 2] 국가별 전체 기술 수준(%) 및 기술격차(년) 변동(2018~2020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2018년	2020년	2018년	2020년	2018년	2020년	2018년	2020년	2018년	2020년
기술수준(%)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	100
기술격차(년)	3.8	3.3	3.8	3.3	1.9	2.0	0.7	0.7	0.0	0.0

주: 미국=100 기준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세부 산업별로 중국은 대체로 ICT, 에너지, 항공 우주, 생명 보건 등 차세대 산업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우위를 점유

[표 3] 한·중 11개 산업의 세부 항목별 기술력 비교(2020년)

	중국 후위 산업					한국 우위 산업					
	ICT, SW	국방	에너지	항공 우주	생명 보건	소재 나노	건설 교통	농수산	기계 제조	환경 기상	재난 안전
중국	85.7	81.7	81.6	81.6	78.0	79.9	80.0	78.6	77.6	75.5	75.5
한국	83.0	75.0	80.2	68.4	77.9	80.8	84.0	81.4	80.7	81.1	80.4
격차	2.7	6.7	1.4	13.2	0.1	0.9	4.0	2.7	3.1	5.6	4.9

주: 미국=100 기준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특허 점유율

- 특허 주요 5개국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특허 점유율의 경우 중국이 56.5%로 1위를 기록(일본 13.6%, 미국 13.2%, 한국 10.7%, EU 6.0% 순)
- 실효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120개 중점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 및 특허에서 중복을 제외한 유효 데이터 건수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한 우위

[표 4] 주요국의 논문 및 특허 유효 데이터 건수 비교(2020) (단위: 개)

	미국	중국	EU	일본	한국
논문	227.437	226.162	318.553	44.316	37.204
특허	160.051	686.063	73.355	165.341	13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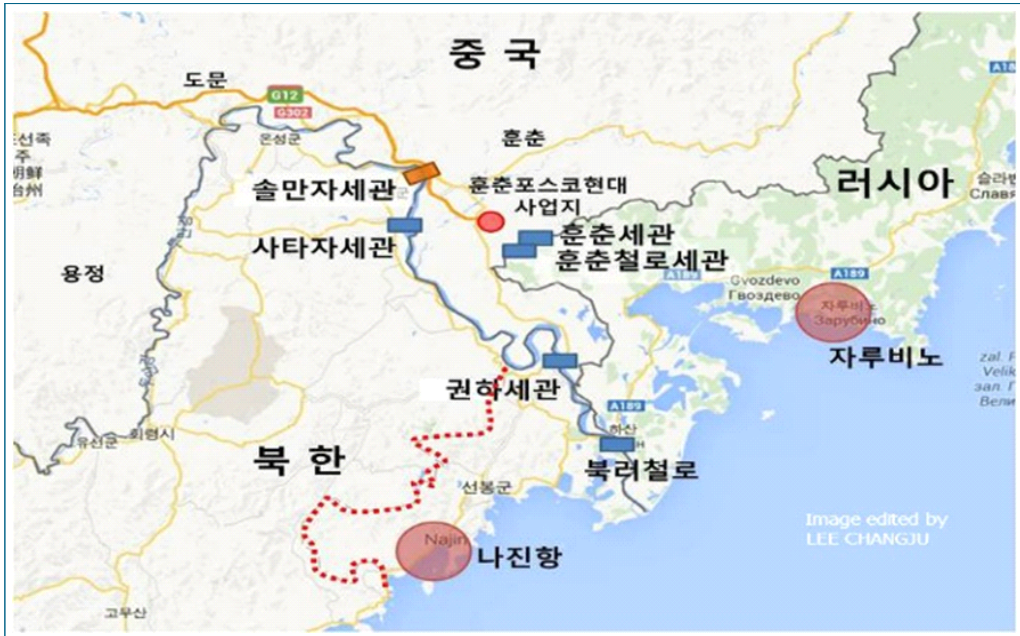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논문 SCOPUS 등재 논문 기준. 특허 각국의 특허청 공개 기준

4) 북한 리스크

■ 중국 역할론

-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을 접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한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여 여타 선진국과 지정학적 입장차이도 존재
- 일본 등 여타 선진국의 경우, 북한의 안보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북한 리스크에 직접 노출된 우리나라와 차이
 - 우리나라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전국이 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어 전쟁 억제에 매우 긴요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
-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확대된 미·중 갈등이 북·중 유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소통 필요성이 증대
 - 북한 관점에서 중국은 정치적 동맹일 뿐만 아니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상회. 특히 최대의 원유 공급국으로 절대적 영향력을 보유
 - 중국 관점에서는 정치적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완충지대 확보를 위한 북한과의 필요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상당
- 북한은 중국과 1,4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접한 국가로 양질의 무연탄 공급원, 동북 3성과 연계된 발해경제권 개발, 일대일로 종착점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함. 특히 동해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필요성 상당

[그림 8] 북중 국경 지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2014)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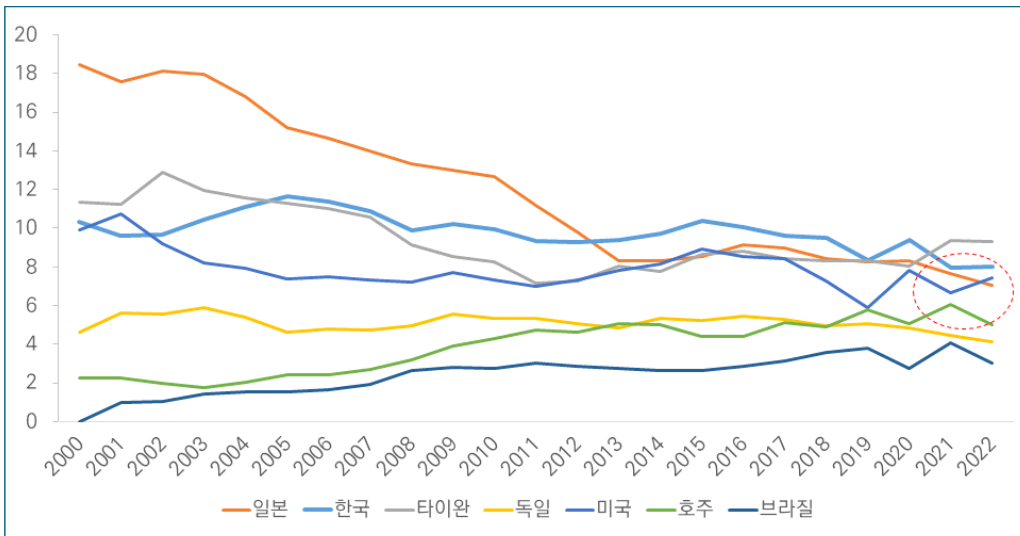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과 갈등보다 협력관계 유지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 다만 향후 중국공급망 의존도 축소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낮은 자세로 대응하기보다 냉온 전략을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막대한 내수시장 등 중국경제가 유발하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
 - 향후 2~3년 내 세계 1위로 부상할 중국 수입시장 진출 확대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 반도체에 집중된 대중국 수출 구조도 소비재 등으로 개선
 - 최근 5년간 G2 수입 증가세(중국 1.0%, 미국 0%)가 지속되면 2024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 일본의 희토류 조달처 다변화 사례와 같이 중국 GVC 축소를 위한 한국형 도광양회²⁾ 전략이 필요
 - 특히 과거 요소수 사태에서 노출된 바와 같이 필수 광물의 중국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타이완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되 우리나라 국익에 따라 필요한 주장은 강하게 개진하고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행사
 - 특히 지적 재산권, 기술 보안 등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인의 경우 미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지도 표명
 - 반면 한·미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주한 미군 비용, 첨단기술 이전 등 사안에 중국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구축도 검토
- 그러나 대중국 관계의 우위 확보 여부는 궁극적으로 기술 경쟁력에 있음을 인지하고 반도체 등 차세대 산업의 비교우위 유지·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2) 도광양회: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으로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키울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뜻

- 중국의 독자 기술 개발과 중간재 국산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는 대중국 관계 우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과 직결
- 현재 한·중 간 기술력 격차 축소 추세가 지속되면 2~3년 뒤에는 반도체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막대한 내수시장 및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우위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절실
-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7년 만에 처음으로 2위로 하락하고 타이완, 일본의 점유율이 상승. 이는 정치적으로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반영

[그림 9] 주요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2000~2022년)

(단위: %)



자료: CEIC

참고자료

- 전보희, 조의윤(2021). 「한중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 김정균, 정혜선(2020). 「세계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 수출구조」. 한국무역협회
- 연원호, 현상백 외(2020).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간 수출 대체 가능성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내영(2021). 「한국형 가치사슬의 구조변화 및 우리의 과제」. 한국무역협회
- 이치훈(2021) 「미중분쟁의 새로운 국면」. 국제금융센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2020년 기술수준 평가」
- 김바우, 김윤수, 김계환(2021).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산업연구원
- 홍자상 외(2021). 「2021년 수출입 평가 및 2022년 전망」. 무역협회
- 정혜상, 강성은(2021). 「최근 주요국 수입구조 변화와 우리 수출 경쟁력 분석」. 무역협회
- 정형곤(2021).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남주 외(2020).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형곤(2020). 「한중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치훈(2018). 「최근 북중무역 특징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2014). “중국 물류포커스 : 中外中 물류환경 변화와 나진·부산항 연계 전략.”
「KMI 중국물류리포트」
- Antonio Varas(2021). 「Strengthening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In a Uncertain Era」.
Boston Consulting Group(BCG)
- IC Insights(2022) Research Bulletin
- 블룸버그(www.bloomberg.com)
- IMF 데이터 시스템(<https://www.imf.org/en/Data>)
- 아시아개발은행 (<https://www.adb.org>)
- 국제결제은행 (<https://www.bis.org/statistics/totcredit.htm>)
-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 CEIC (<https://www.ceicdata.com/ko>)